

지역 소식통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TF추진단 회의 준비 박차

고창군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5일 고향사랑기부제 TF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떠난 지역 주민들이나 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을 공제하고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모금된 기부금은 사회적 약자 지원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한다.

고창군은 지난 9월 고창부군수를 단장으로 고향사랑기부제 TF추진단을 구성해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 추진과제와 효과적인 홍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TF추진단은 특색있는 답례품 개발 및 출항인과의 교류체계 확립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제도 시행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2022년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완료

부안군은 2022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고, 부안군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을 에너지 절약과 편리한 및 안전함을 갖춘 주택으로 변화시켜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주거 취약계층 대상으로 1동당 500만 원을 지원하여 고성능 단열, 고효율 창호 설치로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고 거주자의 안전·건강·위생을 보완하도록 개·보수하여 종합적이고 폭넓은 주거복지 실현을 꾀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동안 부안군은 2012년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10년간 총 24억 원을 투입해 총 674가구 주택을 개·보수하였고 올해는 지난 해 27동에 비해 복권기금 재정을 추가로 지원받아 50동으로 확대하여 더욱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서해안권 중심, 관광도시로”

심덕섭 고창군수, ‘군민행복·활력고창’ 비전선포



취임 100일을 맞은 심덕섭 고창군수가 “서해안권 중심, 세계유산 관광도시 등 5대 비전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풍족하고 살기 좋은 고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6일 오전 동리국약당에서 열린 민선 8기 비전 전략선포식에서 5대 핵심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선포식은 미래전략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도출된 비전을 군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심 군수의 비전선포, 공약선명 순으로 진행됐다.

심 군수가 밝힌 5대 비전은 △서해안권 중심도시 △세계유산 관광도시 △활력있는 경제도시 △풍요로운 농촌도시 △살고싶은 행복도시다.

먼저, 서해안권 중심도시를 위해 노을대교와 연계한 고창발전 대영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선운산-운곡습지-고인돌-고창읍성을 연결하는 관광활성화 정책이 진행되고, 노을대교·서해안고속화철도(새만금-고창-목포) 국가계획 반영에도 힘쓴다.

갯벌세계유산보존본부 유치,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의 신해양 산업이 육성되고, 대형숙박시설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표수산물인 풍천장어, 바지락, 지주삼김의 명품화가 진행된다.

세계유산 관광도시를 위해 2023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가 추진된다. 국내 최초 유네스코 6관왕 그랜드슬램(문화유산·자연유산·인류무형유산(관소리·농악)·생물권보전지역·세계지질공원 등재예정)으로 관광 대도약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심 군수는 “내년은 고창 모양새에 50주년을 맞는 중요한 해이다”며 “새만금 세계캠버리 대회 등과 연계해 국내는 물론, 외국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관광정책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창군은 돈과 사람이 모이는 ‘활력있는 경제도시’로 대변신한다.

이를 위해 심 군수는 임기내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입주 완료로 목표로 제시했다.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임대주택 등 기반시설, 시설투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이 중심이 되는 젊은도시로의 전환도 준비되고 있다. 청년정책 동아리에서 청년정책협의회 청년정책위원회 거쳐 주민참여예산제를 연계함으로써 청년 및 지역문제 현안에 대해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책거버넌스가 구축된다. 이밖에 관계인구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도 추진된다.

특히 심 군수는 ‘풍요로운 농촌도시’를 위해선 농림수축산업의 소득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에 밟고 공제배를 확대해 쌀 값 하락 피해를 최소화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와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덜어 낼 방침이다.

살고싶은 행복도시를 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도시(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 지원확대 등)’,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지역에서 일하는 시스템 구축(전북대학교 정규학과 설치 등)’, ‘사회적 약자의 당당한 사회참여와 돌봄기능 강화(장애인체육관 건립 등)’ 등이 본격 추진된다.

심 군수는 이러한 5대 비전을 통해 4년 뒤 청사진으로 예산 1조원, 경제규모 2조원, 관계인구 10만, 관광객 1000만시대 개막을 제시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비전선포식은 고창군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군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환경혜택 중심도시 고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교육

정읍시, 성별에 평등한 정책 실현·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앞장’

정읍시는 6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정읍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진행했다.

성인지 교육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 불평등에 대한 이해와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 회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제를 연계함으로써 청년 및 지역문제 현안에 대해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책거버넌스가 구축된다. 이밖에 관계인구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는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직 사회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시민이 성으로 차별받는 정책이나 사업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매년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양동욱 한국젠더문화연구원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강연했다.

교육에서 양 원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이 공무원 개인의 역량 강화를 넘어 시민들에게 펼쳐지는 정책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 성희롱 사례와 통념을 살펴보고 양성평등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실천사항을 설명했다.

이화수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업에 성으로 인한 기회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인지 감수성은 공무원의 중요한 덕목”이라며 “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성 인식 수준을 개선해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한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은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청년행복UP 소셜다이닝 ‘청춘식탁’ 진행

부안군은 부안청년UP센터에서 청년 행복UP 소셜다이닝 ‘청춘식탁’ 2회차 과정을 최근 진행했다.

청춘식탁은 11월까지 총 4회차로 진행되는 행사이며, 그 중 이번 2회차는 ‘청년이 모이는 부안: 청년마을과 마을번영’을 주제로 지역의 청년들이 모여 식사를 하며 사회적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소셜다이닝에는 현재 총남서천군 한산면에 ‘삶기술학교’를 만든 장본인인 IT소셜벤처 자이언트 김정혁 대표가 성공사례와 경험을 공유했다.

삶기술학교는 도시 생활에 지친 청

년들이 1500년 전통을 이어온 작은 시골마을 서천군 한산면에 모여 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다. 김정혁 대표는 지역의 전통, 자원과 청년의 감각을 통해 청년이 모이는 마을을 만들어 낸 우수한 사례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청년주도 창업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부안군은 관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비슷한 지역에서 청년마을을 조성 성공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지역혁신 사례를 조성에 의지를 보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대표 브랜드 ‘단풍미인 쌀’ 수매 시작

단백질 함량검사로 합격 판정

정읍시의 대표 브랜드 쌀인 ‘단풍미인 쌀’ 벼 수매가 6일 신대인 화호 DSC를 시작으로 이달 19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단풍미인 쌀 수매는 3개 단지(신대인 고부, 영원에서 산물 벼 형태)로 수매한다. 예상 수매량은 조곡 2394톤으로 수매된 쌀은 오는 17일부터 출시된다.

이번 수매에 앞서 시는 지난달 23일

부터 이달 7일까지 1단계 검사인 단풍미인 쌀 제매 단지 현지 포장검사와 2단계 검사인 단백질함량 검사를 실시한다.

1단계 포장검사는 타 품종 식재, 도복 벼 발생, 병해충 발생 여부 등을 검사해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2단계는 농가별로 채취한 샘플 시료를 검사해 단백질 함량이 6.0% 미만인 농가만을 대상으로 산물 벼 수매를 제한한다.

최종 수매 단계에서는 산물 벼 중질

검사를 통해 타 품종 유입과 피해립, 착색립, 이물 등 품위 검사를 실시한다.

엄격한 단계별 검사를 통과한 수매 조곡은 단풍미인 쌀 전용 저장시설에 등급별로 구분해 보관, 관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고품질 쌀로서의 단풍미인 쌀 품질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 “철저하고 엄격한 수매로 정읍 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화수 정읍시장, 반려동물 지원 캠페인 참여

정읍시가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반려견과 산책하기 좋은 계절 가을철을 맞아 정읍 천변로 공영주차장과 새고을 시장 일원에서 유실·유기견 방지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또 반려견도 가족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와 동물보호 캠페인도 병행 추진했다.

이와 함께 현장 찾은 반려인과 예비반려인을 대상으로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심폐소

생술 등 응급처치 체험교육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유기동물과의 동행, 사지 말고 무료로 입양하세요!’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시 관계자와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동물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